

“부자로 죽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

이형진/아름다운재단 고문



▲ 카네기

20세기 첫문이 열린 1901년 2월 25일, 뉴욕의 한 호텔에서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와 금융왕 존 피어몬트 모건이 마주 앉았다. 이들이 함께 자리한 이유는 카네기철강회사를 거래하기 위한 것이었다.

두 거장이 당대 최대의 기업을 거래하기 위해 만난 만큼 세인의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거래는 어떤 실랑이도 없이 10여 분만에 싱겁게 끝나고 말았다. 이날 모건이 지불한 돈은 4억9200만 달러.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모건은 카네기에게 악수를 건네며 말했다.

“카네기씨, 세계에서 가장 현금을 많이 가진 부자가 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카네기는 그런 말을 듣기에 충분했다. 당시 일본의 1년 예산이 1억3000만 달러였음을 감안하면 세계 최고의 부자로 손색이 없었다. 하지만 많은 미국인들은 이날을 세계 초고의 부자가 탄생한 것보다 세계 최고의 자선사업가가 탄생한 날로 기억하고 있다.

회사를 매각한 이듬해 워싱턴카네기협회를 설립한 카네기는 공공도서관 2500개를 지어 미국 전역에 기증한다. 이어 미국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카네기공과대학, 카네기교육진흥재단 등을 설립하는 데 무려 3억 달러 이상을 쓴다. 이밖에도 그는 공연예술 최고의 전당 카네기홀을 설립하는 등 예술과 학문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자선사업을 펼쳤다.

전신전화국 우편배달부 출신인 그가 왜 자선사업을 펼쳤는지에 대한 사유는 1901년에 쓴 《부의 복음》을 통해 밝히고 있다. 그는 “부자의 인생은 두시기로 나누어야 한다. 전반부는 부를 획득하는 시기이고, 후반부는 부를 분배하는 시기”이라고 주장한다. “부자로 죽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며 여생을 모두 자선사업에 투자에 그의 삶 앞에 그쳐 숙연할 따름이다.

반면, 카네기와 같은 부자들의 기부행위에 대해 평가를 달리하는 사람들도 많다. 혹자는 부자들의 기부는 막대한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교육지책이라고 평가절하한다. 또 카네기와 같은 부자가 탄생하기까지 열심히 땀을 흘린 노동자가 있는 만큼 사회로 환원하기보다 이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카네기의 기부행위는

자본주의의 야수성을 ‘나눔’으로 치유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기도 한다.

그럼에도 많은 미국인들은 카네기의 자선을 숭고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미 미국의 많은 부자들은 그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노력했다. 카네기가 도서관을 지어 헌납한지 100년이 지난 후 또 다른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가 미국의 9000여 공공도서관을 하나로 묶는 전산화 작업을 위해 5억 달러를 기증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사회도 조만간 카네기와 같은 부자들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젊은 벤처기업가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우리 벤처기업들이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전형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머지않아 우리 벤처기업인들이 ‘부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기꺼이 앞장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 카네기홀 전경

* 이형진씨는 협회 <나눔문화사업> 자문위원으로 2년간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아름다운재단>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